

### 열녀춘향수절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09월 평가원]

31)“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제?”

[A] 32)“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33)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34)이때 마침 바라를 탕뎡 치는구나. 35)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도도 간곳없네.

36)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37)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38)“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39)어사또 하는 말이,  
 40)“크게 한번 불러 보소.”

41)“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42)“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43)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B] 44)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45)“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絕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46)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 하기 쉽소. 이홍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C] 47)“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48)“오다니 누가 와요?”

49)“그저 왔다.”

50)“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 서 기별 왔소? 51)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52)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53)애고, 답 답하여라!”

[D]- 54)“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55)“허허, 이게 웬 말인가? 56)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분단 말가?”

57)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58)“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59)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입을 이리 쉬이 만 날쏜가? 60)이제 죽어 한이 없네. 61)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62)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63)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E] 64)“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65)“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66)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67)“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68)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69)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70)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71)만수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엮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선산(先山)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sup>1)</sup>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자만 새겨 주오. 72)망부석이 아니 될까. 73)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74)신원(伸冤)<sup>2)</sup>이나 하여 주오. 75)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1)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2)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 봅시다.**

- ⑤ 당대 사회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했다. ( )
- 춘향은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 )
- 춘향의 비판 의식이 공간 ㉡선산(先山) 발치에 투영되었다. ( )